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3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계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40 여유만만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황출한 이웃>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든든 생활제	40 반려동물극장 <단짝>(재)	10 좋은 아침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TX 호남선 개통 특별 생방송 <남도를 넘어 세계로>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생생정보 스페셜(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55 바른말 고운말	05 비타민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 맛
1	50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 동화 빨간자전거	10 생활의 발견(재)	00 SBS 12 뉴스 45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2	00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한국인의 발상(재)	30 독?독! 키즈쿨	15 세상발견 유레카 55 남도의 생활
3	00 직언직설	10 생명최전선(재)	45 후토스(재)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 사이드
4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 4 10 재취업 프로젝트 <나, 출근합니다>(재)	10 자동공부채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공	00 로봇 트레이너 30 푸르기 탐구 생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라피	10 코파 반장의 동화수시대 (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법상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8	20 모쿠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반려동물극장<단짝> 55 미녀와 야수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명견만리 <청년이 사라진다 제1편> 55 송터	00 수목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00 드라마 스페셜 <냄새를 보는 소녀>
11	0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00 KBS 뉴스라인 40 작은 나라 큰 기적 쿠바 국민건강 지키는 법	10 해피 투게더	15 지기야
12	40 내조의 여왕(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랄라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35 나이트 라인



“연기에 정답은 없어... 그냥 나답게 하고 싶죠”

여전히 소녀같은 배우 윤여정  
영화 ‘장수상회’ 주연 9일 개봉

“이 나이에 제가 최고경영자(CEO)여도 회사에서 그만두고 할 일정인데 제게 맞는 일을 하고 있으니 감사하죠. 배우라는 직업은 이제는 그냥 제게 감사한 일이에요.”

오는 9일 개봉하는 강재규 감독의 신작 ‘장수상회’의 주연을 맡은 배우 윤여정(68)을 30일 오후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윤여정은 ‘장수상회’에서 70세 연에 초보 ‘성철’(박근형)과 첫사랑보다 설레는 연애를 하는 꽃집 여인 ‘금남’ 역을 맡았다. ‘바람난 가족’(2003)·‘하녀’(2010)·‘돈의 맛’(2012) 등 전작에서 선보인 강렬한 캐릭터와 달리 이번에는 소녀 같은 모습이다. 박근형과는 1971년 MBC 드라마 ‘장희빈’ 이후 44년 만에 케플 호흡을 맞추며 극 초반 알콩달콩 연애하는 모습을 선보이지만 정작 그는 “황혼의 로맨스라고 홍보하는 게 못마땅하다”고 솔직히 털어냈다.

“박근형 선생께 나하고 하는 로맨스에 누가 관심이 있었어요? 이상한 거 아니냐 하겠죠. 첫사랑을 만나서 설레는 얘기만은 아닌데...”

영화는 중반 이후 이 영화의 ‘반전’인 성철만 몰랐던 금남의 비밀이 밝혀지며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윤여정은 “내 나름대로는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했는데 영화의 반전 때문에 그런 감정이 다 잘됐다”며 “시사화 때 보고 감독한테 내가 이상하게 됐다”고 뒤라고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1966년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지금까지 매년 영화와 드라마에 한 편 이상씩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는 의외로 “열등의식이 많았다”고 했다.

“제가 미녀도 아니고 목소리가 예쁘지도 않고 연극영화과를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전 그냥 다르고 싶었어요. 이럴테면 ‘김혜자 같은 윤여정’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그냥 나이고 싶었다”는 그는 평소 다큐멘터리를 즐겨 본다고 했다.

“다큐를 보면서 우리는 연기를 ‘오버’해서 잘 못 한다고 생

각해요. 다큐에는 사연이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식을 셋 앞세운 할머니도 나오는데 얘기하면서 우는 걸 못 봤어요. ‘갖죠, 먼저 갔죠. 몇 년 전인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러죠. 우리는 연기하면서 막 울잖아요. 다큐처럼 해야지라고 늘 생각해요.”

윤여정은 “업계에서 ‘저 할머니는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하는 배우다’, ‘저 사람은 일 맡기면 끝까지 잘 해낸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솔직하다 못해 직설적인 화법의 윤여정은 “내가 깐깐한 여자처럼 (인식)이 돼 있는데 아니다”라며 “감독이 하라고 했는 데 못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50대까지는 부딪히는 감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감독은 일권택 감독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감독을 만날 때도 ‘내가 그냥 당신 도구로 이걸 하는 거니까 도구를 쓰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디렉션 주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없다’고 말해주죠.”

윤여정은 “연기는 모범 답안지가 있어서 답안지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영화는 감독이 이끌고 나가는 거라 감독이 날 어려워하고 꺼리면 내 손해”라고 말했다.

“제가 연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타성에 박힌 것도 많고, 사실 신인이 잘할 때가 제일 무섭고 예쁘죠. 우리는 노회했잖아요. 감독이 저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고마운 일이지요.”

그는 앞서 시사화 후 열린 간담회에서 “연기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신인에게는 우리는 흉내 낼 수 없는 무서움이 있다”고 했다.

윤여정이 생각하는 ‘무서운 신인’은 누굴까. 그는 곧바로 한류 스타 김수현을 꼽았다.

“김수현은 40대가 넘어서 될 연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점이 좋은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고요.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웃음) 그냥 제가 죽 김수현이 출연한 작품을 봐 오니 그렇다고요. (웃음)”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말인 스페이스 정글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리자이요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07:15 책과 평화(재)	11:20 세계테마기행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연중기획
08:00 당동당 유치원	<행복한 교육세상>
08:20 로보가 놀러(재)	13:05 역사채널e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10 육아를 부탁해(재)
08:50 코코몽 3	13:40 사이틴
09:05 원더볼츠(재)	13:50 따개비 루
09: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4:00 마야의 모험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30 머털도사	19:00 트리푸트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15:15 두키 탐험대	19:50 청춘! 세계대전기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큐 오늘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당 유치원(재)	<세이렌군도 대탐험>
16:20 원더볼츠	21:30 한국기행
16:30 우당탕탕 아이쿠	<우리 섬으로 간다 신인>
16:45 책과 땅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17:30 두다다쿵	24:05 역사채널e
17:45 로보가 놀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A>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물과 통계>
03:20 " <수학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6:30 " <수학I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05:00 뉴탐스런 <화학I>	18:10 뉴탐스런 <기하와 벡터>
06:00 " <지구과학I>	19:20 " <화학I>
06:40 " <세계지리>	19:20 " <지구과학I>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영어b>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수능특강 <영어b>
09:10 " <이은주의 수학II>	21:50 " <수학I b>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b>	22:3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수학I b>
11:00 " <수학I b>	23:10 2016 수능특강 <국어A>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초등 중간학업 성취도평가 대비 <과학 3-1>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5:50 " <과학 4-1>
08:00 행정사 시험대비강좌	16:20 " <과학 5-1>
08:30 9·7급 공무원 시험 문제풀이	16:50 " <과학 6-1>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17:20 만점왕 문제풀이 <전과목 6-1>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국어⑤⑥>
09:50 " <영어1>	18:40 " <영어3>
10:30 " <도덕2>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1:10 " <국어③④>	20:00 EBS 인문학 특강
11:50 " <영어2>	20:50 EBS 기획시리즈
12:30 EBS 특강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10 중학 중·기시험 대비문제풀이 <사회1-1>	22:00 중학 중·기 시험 대비 문제풀이 <역사 2-1>
13:50 " <사회2-1>	22:40 " <과학3-1>
14:30 " <역사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일(음 2월 14일 戊申)

子	48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60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72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 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0, 59
丑	49년생 마음먹고 있던 일은 잘 이루어지리라. 61년생 일도양단 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73년생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범연한다면 냉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리라. 85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60, 83
寅	38년생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분이 들 것이다. 50년생 알고 있어야 피해갈 수 있다. 62년생 애를 쓰게 된다. 74년생 재만 준비를 해야 하리라. 86년생 주변의 문제가 자신과 관련 되어질 수다. 행운의 숫자 : 84, 07
卯	39년생 영광이 따라리라. 51년생 어떠한 시기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되리라. 63년생 소망대로 하지 말라. 75년생 교체되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87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깨닫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5, 41
辰	40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선다. 52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64년생 처음부터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니라. 76년생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귀한 날이로다. 행운의 숫자 : 91, 24
巳	41년생 성취의 교두보를 설정하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53년생 핵심을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65년생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물러서서 돌이켜 봐야겠다. 77년생 착실하게 정진하면 기쁨과 성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76

午	42년생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볼 일이다. 54년생 농담이 진담으로 될 수도 있다. 66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78년생 여권을 조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행운의 숫자 : 49, 16
未	43년생 핵심 사실들을 유념해야 빈틈이 없을 것이다. 55년생 불편하다면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 67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길조를 따게 되느니라. 79년생 계획대로 진행해도 무탈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82
申	44년생 흥정을 하거나 교섭을 벌이는 형국이다. 56년생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심하지 않는 것이 낫다. 68년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니라. 80년생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처지이다. 행운의 숫자 : 17, 04
酉	45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확실시 조치해야만 훗날의 악재를 완전 봉쇄하게 된다. 57년생 가까운 이가 문제점의 해결을 호소하리라. 69년생 분위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81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5, 35
戌	46년생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기이다. 58년생 철저한 준비와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70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국을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82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흥시를 비껴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6, 50
亥	47년생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59년생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71년생 공멸여 왔던 일에 대한 회색이 들려올 것이니라. 83년생 지성으로써 시종일관한 다면 궁극적으로 성취하리라. 행운의 숫자 : 73, 6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세계적 요리 인류가 전수하는 비법 일기장 열린다

‘요리인류 키친’ 6일 부터 방영

화제의 푸드멘터리(음식과 다큐멘터리의 결합) ‘요리인류’를 연출한 이욱정 PD가 선보인 ‘요리인류 키친’을 선보인다.

1일 KBS에 따르면 KBS 2TV ‘요리인류 키친’은 30여 개국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담긴 음식 150가지를 탐구하고 그 특별한 요리법을 선보이는 쿠싱쇼다.

프로그램은 6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40분에 방송된다. 1편은 황야 카우보이들이 최고로 꼽는 요리인 치킨 프라이드 스테이크를 소개한다.

2편은 일본의 작은 우동가게에서 처음 선보인 다음 100년간 사랑받은 카레 우동의 비밀을 알아본다. 3편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장인인 로랑 뒤센의 크루아상 샌드위치를 소개한다.

4편에서는 카스텔라에 달걀 옷과 달콤한 실랑을 입힌 일본 대표 디저트 카스도스를 선보인다. 5편에서는 프랑스 명품 닭



인 브레스닭을 포도주에 조린 가정식 꼬꼬뽕을 만나본다. KBS는 “이욱정 PD가 요리와 인류 이야기를 하고자 카메라를 드는 대신 앞치마를 틀렀다”면서 “세계적 요리 인류들이 전수하는 요리법들로 가득한 일기장이 열린다”고 밝혔다.

톰 크루즈, 믿고 보는 할리우드 배우

18.4% 1위... 조니 데프·디캐프리오 순

국내 관객이 가장 믿고 보는 할리우드 배우는 ‘진절할 톰 아저씨’ 톰 크루즈(사진)인 것으로 조사됐다.

CJ CGV는 지난 1월 23일~2월 5일 작년 상·하반기 각각 2번 이상 CGV를 이용한 고객 925명(복수 응답)을 대상으로 ‘영화배우·감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톰 크루즈(18.4%)가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톰 크루즈는 ‘연기 잘하는 배우’ 부문에도 5위, ‘외적으로 매력적인 배우’ 부문에도 4위에 오르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른 인기와 신뢰도를 보였다. 톰 크루즈의 뒤를 이어 조니 데프(16.1%), 리어나노 디캐프리오(13.9%), 브래드 피트(12.5%), 스칼렛 요한슨(12%), 리암 니슨·루 제넬(11.1%), 앤젤리나 졸리(11%), 앤 해서웨이(10.9%),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10.7%) 등이 믿고 보는 배우로 뽑혔다. 외적으로 매력적인

할리우드 배우 1위는 스칼렛 요한슨(16%)이 차지했다. 아만다 사이프리트(13.3%)가 2위였고 ‘없다’(12.6%)라는 답변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톰 크루즈(12.4%), 엠마 왓슨(11.6%), 앤 해서웨이(11.5%), 브래드 피트(10.9%), 리어나노 디캐프리오(10.6%), 앤젤리나 졸리(9.6%), 나탈리 포트먼(7.8%) 등이 뒤를 이었다.
CGV 리서치센터 이승원 팀장은 “흥행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상위에 오른 것을 볼 때 외국 영화의 경우 영화 배우 의존도가 국내 영화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22%포인트다. /연합뉴스

